복 없으면 박복함 아니고 악함이다

(시편 1:1~6)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복 없으면 박복함 아니고 악함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복 없으면 박복함 아니고 악함이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1편은 150편의 주제를 총괄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을 가지고 시편으로 들어갈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며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절과 2절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되었고,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검찰, 국방부, 국정원, 교육, 에너지 정책 등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혁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갑을관계의 모든 상행위에 대한 개혁의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개혁의 바람이 국회에만 무풍지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연일 뉴스에서는 개혁이 시도되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개혁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개혁이 100% 올바른 개혁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끝은 다시 부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온전한 복지를 이루었다고 하는 서구 사회가 그러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영국이 이제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모든 개혁은 복 개념의 개혁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 개념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제도적인 개혁에 머무른다면 언제나

한계는 찾아옵니다. 일시적으로 좋은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다시 부패하고 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 없다는 말을 할 때에 박복(薄福)하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스토리의 여주인공을 떠올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 복 없고, 자녀 복 없고, 건강 복도 없습니다. 시댁 복도 없고 친정 복도 없고 아무 복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박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람을 보면 연민의 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박복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연민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박복함을 선악의 판단에 의해서 중립적인 상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곧 악한 것이고 죄인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박복함이 왜 악한 것이 된다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언뜻 “가난이 죄”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가난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과 반대에 있는 재물의 풍요로움을 복으로 보는 개념부터 개혁이 되어야만 하는데 본문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대칭구조에 놓습니다. 이러한 대칭구조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사이에 끼어있는 중립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복이 없으면 악인일 뿐이고 복이 있으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로부터 복 개념의 개혁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이라는 뜻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쉬레이(אַשְׁרֵי)입니다. 아쉬레이는 ‘똑바른 길로 나아간다.’라는 뜻의 ‘아샤르’라는 동사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처해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시편 기자의 머릿속에 떠올린 사람의 처지는 세상과 하나님과 삼각관계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세상을 향해 갈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녀가 다 성공하고 쾌속승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이라는 말은 세상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삼각관계에서 곧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삼각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없고, 실제로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여기며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게 됩니다. 얼마든지 진짜 복을 찾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갖게 되는 삼각관계 안에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악인으로 결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는 남편 복, 재물 복, 건강 복, 승진 복, 친

구 복, 성공 복 등등의 세상에서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세상을 향하든 하나님을 향하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공백이 있어서 이 마음을 채울 때에만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을 받았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또한 복된 상태는 마음이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이 마음의 공백은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 가면서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에 마음은 박복해지고 맙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물질적 의미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을 차용하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시고, 복된 상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상태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보이는 세상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세상 것을 빨아들이려고 할 때에 박복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복이 없는 곳에서 복을 찾고 있기 때문에 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팔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의 사주팔자는 박복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의 양자구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복을 찾아 마음을 채우려는 자들이 왜 악인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악인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규정되어 있는 법을 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법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을 이야기 할 때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속성을 일컫지만,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우선적인 속성은 만족과 기쁨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들은 마음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주리라 믿어지는 대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신으로서 격상시킨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자녀를 신으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돈 벌어서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면 돈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돈 좀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 믿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박복한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돈을 벌어서 만족하고 기뻐하려는 사람이 악인이고 악인의 꾀는 그가 돈을 벌기 위해 생각하는 방법론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는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으로 기쁨과 만족을 삼으려는 자들이 악인이며, 그렇게 마음에 담은 것을 손에 쥐기 위해 활동하는 자들이 죄인입니다.

'오만한 자'는 그렇게 죄인으로 활동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자들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얻고 승진을 얻고 건강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복으로 일컫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실제로 손에 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만족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채워짐을 느끼지 못하고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님을 느끼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오만함이 나타나는데 타인을 멸시하고 모욕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돈으로는 채워지지 못함을 알았을 때에, 자기처럼 돈을 벌려고 애를 썼지만 못 번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만족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아무리 해도 끝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보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멸시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돈 많은 사람들끼리 계층을 형성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그 틈으로 끼어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갑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국적으로 체인망을 형성하고 있는 본사의 회장이 지점의 점주를 박해하다시피 해서 이권을 탈취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를 생각해봅니다.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정도 가졌으면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지점장들은 밥이나 먹고 애들 교육이나 시킬 수 있으면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더 많이 뜯어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처럼 권력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존의 권력층들끼리 힘을 합쳐 눌러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합니다. 권력을 가져도 기쁨이 없기에 권력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기쁨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돈을 가져봤자 기쁨이 없기에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이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가지지 않아도 다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가는 사람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먼저 세상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

다. 돈을 붙잡고 사업을 붙잡고 자녀의 형통 등을 붙잡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허락받을 수도 없습니다. 신앙은커녕 지독한 자기기만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며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먼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도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머슴처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복은 나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채워진 상태가 복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과 하나님과의 삼각관계에서 복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때에 복 있는 사람은 곧바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거나, 세상에서 마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곧바로 하나님께로 보내는 것입니다. 곧바로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1절 밖에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시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고 기초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구도는 곧 삼각관계의 구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인은 빈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죄인은 그렇게 믿고 실제로 그것들을 쥐기 위해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그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 자신과 똑같은 길을 가려는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월감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복 있는 사람으로 결정되는 삼각관계의 구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보이고 들리는 세상 쪽으로 끌려가는 마음에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여 곧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